

간호원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경향

看護員의 權利

메 리 · 패 턴

The Rights of Nurses

Mary E. Patten은 현재 호주간호연맹 사무총장이며, 호주 보사부 간호인력위원회 위원, 병원 및 보건사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ICN의 사회경제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일하였다. <편집자주>

1948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 하였습니다. 즉 “인류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나면서부터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음을 認定하여 이 世上의 전 人類의 自由, 正義, 平和의 기반이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국제간호협회의회는 1973년 그 憲章에 同 宣言의 序文을 引用하여 모든 個人이 갖는 權利로서 看護員의 權利를 宣言한 바 있습니다.

本文은 人類家族의 構成員으로서 남에게 讓渡할 수 없는 權利로써 모든 個人의 權利를 宣言한다는 意味에서 “看護員의 權利”란 제목을 基本的인 立場에서 檢討해 보려고 합니다.

每年 해가 거듭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들이 相互依存的이라는 事實을 점점 더 意識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디에서 우리가 生活을 하던지간에 우리는 人類家族의 一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技術文明의 漫延과 急速한 人口增加, 점차적으로 複雜化되어 가는 意思傳達手段의 效果 等, 諸 要因들이 作用하는 한 全體 體制의 一部로서 繼續하여 生存을 하여야 된다는 壓迫感을 느끼게 됩니다.

메일하드 차르던에 依하면 우리는 現在人類의 進化過程의 한 時期에 살고 있으며, 進化는 停

止하지는 않을 것이고 人類의 成長과 發達에 있어서 全的으로 새로운 紀元으로 넘어가는 頂點에 있다고 합니다. 차르던은 人類의 始作은 南極에서부터 였다고 想像的인 地球을 따루어 생각합니다. 大部分의 우리들이 現在 恐怖에 떠는 變革이란 “우리가 數百萬年동안 努力하여온 것을 苦運스럽게도 醉氣속에서 正確하게 思考하는 것을 喪失할지도 모른다”는 事實이라고 하였습니다. 人類의 膨脹물결은 地球의 直徑을 넘어서 不可避하게도 赤道에 까지 到着하였습니다. “우리는 膨脹에서 壓縮으로 變化하고, 아직도 가장 重要한 特色으로 보이는 收容線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계에서 새로운 型의 세계인 急速히 目體를 접어버리는 세계로 變化하는 것을 經驗”하고 있습니다”.

赤道에서, 멀리 떨어져지 않은곳에 “文明의 擴張이 發見된 것을 感覺할수 있는 要素間에 獨立的인 手段으로 分離되어 나간 分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다 더 향락을 누리려거나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여서가 아니고 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하여” 單一協定方向을 찾아 人類의 壓縮을 지키는 時代로 變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進化過程의 次期時代로 方向을 가고 있는 人類의 壓縮에 關한 概念은 特別히 “보다 오래 存在하기 爲해” 努力한다는 事實은 精神心理學과 社會學 分野의 보다 많은 學說을 내 놓게 하고 있습니다. 차르던의 見解를 다시 引用하면 人類는 계속적으로 新大陸의 發見等 擴散機會을 擴大하여 왔으나 人口增加의 壓力은 많지 않은 數의

사람들이 보다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存在할 수 있는 機會를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프로이트도 言及하기를 “文化에 對한 自我的 倫理的 要求는 그 自體에서는 별다른 問題가 되지 않으나 人間의 精神的 根本에는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종할 것인가 혹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기 보다는 단순히 命을 내리고 있다⁶⁾” 멜튼도 「사회구조와 사회학설」이란 著書에서 社會의 목표는 설정되어지나 사람들이 그 目標을 達成하게 될지 혹은 아닐지에 對한 것은 또 다른 問題라고 말하고 있어서 프로이트와 좀 다른 角度에서 學說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文化的 目標은 個人的 精神狀態에 따라 그 適應效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였다면 멜튼은 中극적으로 社會分裂은 文化的인 目標을 成就시키려는 手段과 그에 따른 긴장감 때문에 發生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분 學者가 共通의으로 文化가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日刊新聞紙를 사서 보거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對話를 나누는 것을 잠깐 들어본다면 프로이트와 멜튼의 의견이 일치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個人은 支配的인 文化的 價値나 規範, 혹은 非正常으로 命명되었거나 取扱을 받은 事實로부터 어쩔 수 없는 狀態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나 멜튼의 이러한 學說은 社會化過程과 부수적인 問題點에 關한 것으로 어느 個人이 社會의 期待에 어긋나게 生活하였을 경우에 發生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 들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발전하여 有名한 파블로프의 실험과 비슷한 條件反射의 行動, 개념으로 되었읍니다.

스킨너는 “새로운 型의 行動은 報償에 따라 선택도 되고 버려지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⁷⁾. 이와같이 보상과 처벌에 對한 직접적인 反應을 보인다는 行動科學은 여러 社會學者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읍니다. 非正常行動은 社會化過程의 形態나 命名에 依하여 發生되어 소위 말하는 범죄자란 행동과 괴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事實을 좀더 명료하게 하기 爲하여 다음 言句를 引用하겠읍니다. “범죄자나 우범자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신중히 기억해야 할 事實은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社會集團으로부터 正常的으로 人間에게 必要한 各種 要求와 자극 및 인정, 그리고 期待에 反應을 하기 爲하여 그러한 行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⁸⁾” 이와같이 他人의 要

求에 맞는 反應을 보이기 爲하여 어느 個人的 行動이 決定된다면, 人類家族의 모든 構成員의 權利에 對해서 말하려고 할 때 特別히 看護員의 權利에 對해서 言及하려고 할 때 根本的인 조건은 社會와 他人의 要求에 두어야 하겠읍니다.

만약 어느 個人的 行動이 全的으로 他人의 決定에 따라서 行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느 個人的 權利에 對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른 나라의 看護員들과 對話를 나누다거나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들에 對하여 情報交換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항상 興味있는 일이었읍니다. 흔히 具體的인 問題들은 서로 多樣하게 다른수가 있읍니다만 基本的인 類似點이 있는것 같았읍니다. 최근 호주에서 있었던 세가지 例를 들어 보도록 하겠읍니다.

約2年前 看護員들은 政府와 그들이 採用하고 있는 看護員들의 報酬의 給與率에 關하여 爭議를 일으킨 적이 있읍니다. 國立病院의 어느 한 病院에 勤務하는 看護員들은 爭議의 程度이 이루어질 때까지 患者들의 入院을 더이상 許諾하지 않겠다고 決定하였읍니다. 當時 兇惡의으로 賃金引上 要求는 勝利를 얻을 수 있게 嚴한 規則이 適用되고 있었읍니다. 理由는 모든 賃金生活者들의 生計費가 上昇되었다는 事實이 反映되었기 때문입니다. 看護員들은 協商이 遲延되지 않고 要求事項이 保障되자 即時 患者들의 入院을 받아들였읍니다. 如何間, 그 當時 發見된 事實은 같은 州(道)안에서 問題가 發生한 病院은 他病院과의 사이에 看護員들의 賃금이 差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看護員이 不足하게 된 것이 가장 큰 問題點 이었읍니다. 이때 濠洲看護聯盟에서는 한 病棟에서 看護員들이 얼마나 많은 患者를 實質的으로 돌보고 있는가에 對한 資料를 作成하여 病院責任者에게 通報시켰읍니다. 이때 看護員의 賃金協商과 함께 患者 數의 最大 入院數를 定하자고 하였을때 病院當局은 본격하여 大端한 反對를 하였읍니다. 結論은 濠洲看護聯盟代表와 病院看護員 代表가 長官을 포함한 政府의 代表와 會議를 하여 賃金引上要求는 成功的으로 解決을 보았읍니다. 賃金引上과는 別途로 看護員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適切한 看護를 提供할 수 있다고 믿는 數의 患者를 決定하여 認定받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 事件이 成功的인 解決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두가지 要

點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濠洲看護聯盟과 病院看護院의 指導者들이 意志와 能力을 갖고 소위 말하는 非看護要員들에 의한 濫用을 이겨 낸 것입니다. 가장 極甚한 例는 元老醫師들이 個人의 看護員에게 엄청난 壓力을 加한 것입니다. 醫師들은 看護員에게 그들이 入院시키기를 希望하는 新患者가 얼마나 많은가를 指示하기만 하면 看護員들은 별다른 反應도 할 것 없이 그들이 말하는대로 따라야만 된다는 慣習에 젖어 있었습니다.

病院의 責任看護員이 新患入院決定에 對해 “안 됩니다. 우리는 以上 더 患者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答辯하였을 때 그 看護員은 自身の 價値判斷과 信念 그리고 知識에 基礎를 두고 責任 있는 行動으로 그와같이 答한 것입니다만 다른 條件下에서 或者는 화를 내기도 하였고 看護員들이 無責任하다고 힐난하거나 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例는 첫번째의 例와 性格이 다소 差異가 있으며 本文을 作成하는 現在도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 例입니다. 濠洲의 일부地域에서 保健看護員들은 그들이 傳統的으로 遂行한 地域社會保健 接近法이 非效果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變更하여 새로운 接近法을 開發시켰고 또 繼續하여 發展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最近 그들은 行政當局이 關與하여 制定했던 것을 行政의 으로 變更시키고자 하는 提案을 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行政當局이 制定한 것은 看護員들이 이제까지 價値있다고 믿고 實行시켜온 많은 業務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적용시킬 수도 있게 不分明하게 作成되었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입니다. 行政當局은 新制度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조만간 실시하려고 하였고 濠洲看護聯盟은 이것을 중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濠洲의 制度는 새로운 制度法案이 소개되었을 때에 看護員들이 그것을 기각하고 그 法案을 拒否한다는 것을 關係要路의 擔當者들에게 通告할 수가 있습니다. 濠洲看護聯盟의 代表와 行政關係機關의 代表가 會晤를 한 結果, 새로운 制度法案의 實施는 中斷되었으며 看護員들이 地方行政者들과 協商을 벌이는 데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로 했습니다.

일단 看護員들과 行政者들과의 사이에 合意가 成立되면 그 提案이 內包하는 意味는 理由가 있다고 보아, 紹介되며 그것을 또 두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看護員들은 이 事件에서 自身들이 생각하는 價値와 信念, 그리고 知識에 따라서 行動을 取하였는지 單純히 다른 사람의 期待에 맞게 하기 위하여 行動을 取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번째이며 마지막인 例는 濠洲의 看護教育制度 變更案이었습니다. 1974年度까지 濠洲에서는 모든 看護員들이 病院附屬看護學校에서 看護를 하나의 技術習得訓練式으로 教育을 받아왔습니다. 現在도 極少數이긴 하지만 몇몇 學校에서는 學生들이 이와같은 教育過程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看護員들이 全國의 으로 그들의 見解를 表明하기를 看護教育은 中等教育을 畢한 後 高等教育機關에서(第三水準의 教育) 學生教育이 實施되어야 看護專門職의 看護員으로 教育될 수 있다고 主張한 것입니다. 이 教育의 變化는 1985年에나 完全히 改善이 될 豫定입니다.

이러한 變化를 成就시키려면 克服해야 할 實務的인 많은 問題들이 있다는 것을 認定합니다. 提案된 變更를 反對하는 사람들은 主로 醫師會의 會員 一部와 保社部와 文教部의 關係者들로 實務的인 問題點들을 理由로 내세워 變更이 탐탁치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看護員들은 많은 境遇에 危險한 競技를 하게 됩니다. 즉 避할 수 없는 事實은 看護員들 중에서 同 提案에 同意하지 않는 者가 몇퍼센트 정도 있게 됩니다. 그들도 그들의 價値와 信念 그리고 知識에 따라서 行動하기 때문에 그렇게 主張하는 것은 그들의 權利라고 봅니다. 그리고 相當數의 看護員들은 狀況에 따라서 支持便에 서기도 하고 反對便에 서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支持者便에 있는 看護員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들 同僚의 意見에 同意하면서 그들의 期待에 맞게 反應을 보이는 것이고, 만약 反對便에 屬한 看護員들인 境遇 그들도 그들 同僚의 意見에 同意하면서 그들 同僚의 期待에 맞는 反應을 보이는 行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스런 사람들인데 그 理由는 이러한 사람들은 自身이 생각하는 價値나 信念 및 知識의 判斷에 基礎를 두고 行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單純히 他人의 期待에 따라 反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他人의 價値와 信念 그리고 知識을 理解하고 價値있다고 判定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가? 則 他人이란 他看護員과 醫師 및 地域社會에서 保健서비스를 利用하고 있는 患者나 其他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以上の 세가지 例文에서 本人이 強調하고자 한 것은 個人은 그 自身の 價値와 信念 그리고 知識에 準하여 行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本 例文에서 볼 때 人間의 權利는, 本人이 이용하여 基本權이라고 믿고싶은 것은 個人의 權利와 責任이 그 自身が 信念에 기초를 둔 行動이지 결코 他人의 認定이나 期待, 또는 要求나 자극에 反應을 하기 爲하여 하는 行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看護員의 權利는 익숙하지도 않은 節次를 遂行하도록 要請받거나, 未來의 순응을 내다보고 現在 看護하고 있는 患者數보다 더 많은 患者를 看護하도록 看護行政者나 患者 혹은 고객들로부터 要請을 받음으로 每日같이 法律의 限度를 넘어서 侵犯을 당하고 있습니다.

看護員의 權利는 또한 同僚看護員中에서 自己 自身の 價値나 信念 그리고 知識에 따라 行動하지 않고 他人의 期待에 따라 反應을 보이기 爲하여 行動하는 看護員들에 依해서 每日같이 侵犯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참고 견디겠습니다.” 看護員들은 그들에게 要請되는 事實이 非現實的이고 이러한 非現實的인 것을 참고 견디라고 하였을 때 또 그렇게 참고 견디겠다고 誓約한 바와같이 答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을 것입니다. 應急事態가 發生한 境遇에 看護員들은 때로 極端의 要請을 받을 수가 있는데 濠州看護員들은 이러한 때에 應急事態가 끝날때 까지 참고 견디는 意志와 能力을 때때로 보여 왔습니다. 本人은 지금 非常事態를 應急이라고 意味하여 말한 것은 아닙니다. 本人이 뜻한 應急은 漫性的인 應急事態로서 極少數의 사람에 依해서 너무 많은 要請이, 너무도 非現實的으로 참고 견디어 내기를 바라는 期待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境遇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態度는 濠州看護員들에게 많은 苦를 끼쳤다고 보며 제가 믿기에는 患者와 고객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며 그 事實은 人間의 基本權利가 本人의 身體的, 精神的, 倫理的, 道德的, 知的, 靈的인 要求에 對하여 本人이 行動을 取하고 또 그 行動에 制裁를 加하는 行爲가 變則的으로 狼狽을 爲해서 發生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本人은 無政府主義者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社會化過程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떤 行爲에 對해서 배울때 한 家族의 構成員으로 또 地域社會

의 一員으로서의 行動은 그 社會에서 容납되거나 容납되지 않는, 行動에 따라 大部分 報償과 처벌을 받는 原理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行動은 그 社會질서 속에서 一次的으로 社會가 하나가 되어 定한 것이거나 社會의 多數 人口集團에 依해서 定해진 行爲들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成長함에 따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行動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떤 行動이 容납되지 않으면 또 社會의 전체 價値와 信念에 對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生애에서 드는 사람이 어린이대도 남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남게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社會化過程에서 興味있는 일의 하나는 어린이들이 “나”라는 단어를 使用하기 始作하는 어린 나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을 칭하여 “나”라는 말을 적용시킬줄 알게 되는 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신다면 단순하게 証明되는 事實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라는 말을 모방하여 使用할 때 그말에 대해 報償을 받은 結果로 그렇게 배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社會化過程에서든 어린이는 아주 어릴적 부터 그 自身の 하나의 人間으로서 自我를 갖고 있음을 말로 表現한다는 事實입니다.

매슬로우의 人間動機化에 關한 學說에서 動機造成은 人間行動의 單一決定要因에 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그에 依하면 動機造成은 “마치 地方文化와 關聯된 學習이 아니고서는 動機造成을 決定시킬 수 있는 要因이 없어서 現在 流行하는 어떤 社會의 態度나 취미, 興味 또는 진작가치 등, 누가 어쩔수 없는 社會環境의 여세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슬로우는 文化와 關聯된 人間의 健康的의 기초가 되는 基本要求를 잘알고-지신바와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즉, 基本要求의 단계를 生理的 要求, 安全에 對한 要求, 소속을 원하는 要求, 自己尊重과 自己行動化로 區分하였습니다. 그는 이 基本要求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各各의 要求를 하나의 계층으로써 확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基本要求가 集團內에서 自己防禦, 正義, 정지, 그리고 질서유지에 對한 自由가 確保를 받는 條件下에서는 最少한 위험을 느끼고 거의 유지되기가 不可能하여 基本要求에 對한 充足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

다면 分明한 事實은, 個人的 權利란 社會가 이미 定해 놓은 條件에 달려있고 이러한 社會의 前提條件이 存在하는 한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看護員의 權利에 對한 이야기를 하는 때 個人的 權利에 對한 이야기를 들춰낸다는 것은 비웃음을 사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結論的으로 看護員의 權利란 集團內에서 의사 표시, 정의, 정직, 질서유지의 自由가 確保를 받는 여건이 變化되지 않그는 그 權利가 거의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本人이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個人的 權利, 즉 自身の 價値, 信念, 知識에 기초를 둔 行動은 人間的 基本慾求를 充足시켜 주는 權利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行動이 地域社會內에서 保障되도록 하는 것이 個人的 權利를 유지시키기 위한 地域社會의 前提條件이라고 보아 看護員의 權利를 主張하는데 있어서 매슬로우의 學說을 本文에 인용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매슬로우의 著書 「動機造成과 性格」에서 그는 基本要求 充足으로 좋은 社會的 效果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慈愛, 知的, 性格추격, 對人關係 및 其他의 結果에 依한다고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本人은 매슬로우의 基本要求 充足을 決定하는 요인을 여섯가지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成人의 行動은 그 自身の 價値, 信念 및 知識에 기초를 둔 行動을 할 때 그의 基本要求充足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個人에게도 궁극적인 效果를 갖다줄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市民”이 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功헌을 한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칙의 成果로 선정한 것은 한 個人이 自律的인 감정을 經驗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事實에 對한 소극적인 선호감정과 잘 알고 있지 않은 事實에 대한 보다 적은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보다 底座的이고, 尊貴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尊重할 줄 알고, 보다 높은 價値와 보다 높은 靈的인 生活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人生에서 승리와 패배, 적대관계 및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가진 것의 關係를 초월한 사람입니다.¹⁰⁾

看護員의 權利가 많은 나라에서 깃뚫혀 왔거나 무시당했거나 또는 反對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看護員의 權利에 對한 이야기로 돌리면서, 우리는 看護員으로서의 責任과 權利를 우리들의 事

業計劃과 活動事項과 관련시켜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爭點을 검토해 봄으로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그 事業計劃과 活動은 看護員들이 勤務하는 敎育, 社會, 文化的인 조건과 報酬를 改善시키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人類膨脹의 壓縮은 個人이 추구하는 보다 많은 향락이나 보다 많은 지식 뿐아니라 보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많은 량의 정신적 에너지의 발산을 억제시킬 것입니다. 技術文明은 현재 우리가 내버릴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콤퓨터의 발명은 조지·오웰의 1984년을 말하는 “만형(Big Brother)의 時代에 功헌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중식에 쓰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本人은 本人이 平素 갖고 있던 個人的인 哲學觀의 一部를 批駁하고자 시도 하였었습니다. 本文에서 言及한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제목으로 1年이란 時間이 상당한 격차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本文의 要點은 看護員의 權利와 義務는 併行을 하여야 하는데, 本人이 믿기에, 看護員의 權利는 다른 어느 個人的 權利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義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他人의 期待나 혹은 他人의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단순히 反應을 하기 위하여 보다는 그녀 自身の 價値, 信念, 知識에 기초를 두고 行動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人間的 權利와 看護員의 權利에 對하여 여러분의 個人的인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本人은 古典인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에서 兩 句文을 인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冊에 쓰여진 歷史는 分明치 않으나, 우리가 지금 추측하기에 풍자보다 1百年前쯤의 古代로 보여집니다.¹¹⁾

인용된 구문은 “始作의 어려움(Difficulty at Beginning)”과 “착함(The Well)”이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人間이 永生할 수 있는 자락을 發見하기 爲하여서는, 그는 分離하거나 團合을 할 줄 알아야 한다.”¹²⁾

“人類社會의 政治的 社會的 組織體를 滿足시키기 爲하여서는 두가지 前提條件이 있다. 우리는 마땅히 人生의 根本에 가지 내려가야 한다. 人生에서 단순히 形式的인 生活은 마치 질서를 찾

가 아무런 努力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이 非效果의이고 마음속 깊숙히에 깔려있는 기본요구는 불만으로 남게된다.....모든 人間은 敎育過程을 통하여 人間根本의 신성함이 지킬줄 모르고 흐르는 샘물과 같음을 발견해 낼 수가 있다...그러나 어떤사람은 人道主義의 근본 참뜻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의 敎育을 失敗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社會生活을 하는데에 하나의 慣習으로 固定되어서.....그사람은 갑자기 그 자신의 發展이 무너치거나 무시될지도 모른다.....人生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그 自身을 경근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時期에 그는 他人을 爲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自身の 일은 말할 것도 없이 가치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이유는 그 自身の 內面的인 發展을 통하여 그의 힘과 能力을 높이 길러서, 後에 보다 큰 일을 성취시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¹³⁾

《번역 · 이선자 교수》

참 고 문 헌

1. United Nations-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p.2. (Uni-

ted Nations,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U.N. 1966 Reprint).
 2. Teilhard de Chardin, P.: Man's Place in Nature, p. 100. (Fontana Books, London and Glasgow, 1971).
 3. Ibid, p. 103.
 4. Ibid p. 102.
 5. Ibid p. 107.
 6. Freud, S.: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p. 80 (Hogarth Press, London, 1963).
 7. Skinner, B.F. Science and Human Behaviour, p. 430. (The Free Press, New York, 1963).
 8. Tannenbaum, F.: "The Dramatisation of Evil" in: Rubington, E.S. and Weinberg, M.S. (eds):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p.19 (MacMillan, New York, 1968).
 9.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and ed), p.69 (Harper and Row, New York, 1970).
 10. Ibid p.p. 73-75.
 11. I Ching or Book of Changes, The Richard Wilhelm Translation, 3rd., 1968,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1975 reprint).-p. XIV.
 12. Ibid, p. 17.
 13. Ibid, p. 186-188.

《83페이지에서 계속》

9. Ibid.
 10. Merton, R.K.: "Issue in the Growth of a Profession", Conven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 296 (American Nurse's Association, New, York, 1958).
 11. Congress for Nursing Practice: "Why Standards of Practice?", Standard of Nursing Practice, p. 1 (American Nurses' Association, Kansas City, 1974).
 12. American Nurses' Association: Code for Nurses with Interpretive Statements, p. 3 (American Nurses' Association, Kansas City, 1976).
 13. Joint Statement on "The Nurse Functioning as a Primary Care Agent" issued by Western Council on Higher Education for Nursing,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and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 1 (1971).
 14. Notter, L.E. and Spalding E.K.: Professional Nursing: Foundations and Relationships, p. 256 (Lippincott, Philadelphia, 1976).
 15. One Strong Voice, The Story of th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Compiled by L. Flanagan, p. 23 (American Nurses' Association, Kansas City, 1976)
 16. Fenwick, E.B.: "The ICN Idea", in Arnold, V.: "The Past: Way to the Futur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21.
 17. Ibid.